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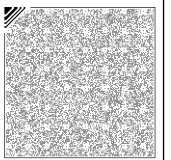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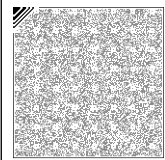


'201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실무자 워크숍'

새보람

SAEBORAM

소리로 읽는 새보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2)796-4280

www.kappd.or.kr

제241호

2013년 1월

2013 신년인사회 및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

- ◆ 기 간 : 2013. 01. 24(목) ~ 25(금) / 1박2일간
- ◆ 장 소 : 홀리데이 인 호텔(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소재)
- ◆ 주 최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 ◆ 주 관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함께 가는 길

시인 박경훈

한 생애 능선을 따라 함께 가는 길
보석보다 영롱한 빛이여!
해돋이 일출을 온종일 뒤쫓다가
낙조가 은하수에 불 밝히면
우리네의 자연은 동양화 예술이네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겠지만
서럽다 않고 피는 참사랑도 없겠지만
태산처럼 커져가는 세월의 구박도
마음의 빗장은 녹슬지 않았기에
예지의 눈빛으로 함께 가야만 하네요

오묘한 징표와 강력한 불사조의 밝음은
새해의 문턱으로 노래 부르며
알찬 도약을 시도하는 생명의 환희에
가냘픈 일세의 우리네들
계사년의 횃불을 밝혀 달려야만 하네요

삶이란 연주하는 교향악이 그림자만
갈수록 견고해진 눈빛들
지구촌에 쏟아지는 알갱이들
운명의 신화는 반듯이 찾아 오기에
잠겨진 인감도장 동백꽃은 여물고 있네요

우리네 가슴속 텃밭에 인내를 심고
몸 속에 문신처럼 깃들인 세월들
저차원의 삶에서 고차원의 삶 계사년
팽팽한 활채어 두마귀에
햇살 가득한 소망이 빙글빙글 구르고 있네요

발행인 칼럼 / 신년사

계사년(癸巳年) 새해,
지장협 제2의 도약을 꿈꾸며

한 장애인 정책의 미흡함을 다시 한 번 눈으로 확인하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올 한해는 아직 통과되지 못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들의 고통을 헤아리기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사회적 약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에 힘써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인 편의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개정 등 중장기 계획을 수행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내실화를 이뤄내겠습니다.

셋째, 장애인 자립작업장의 경쟁력 있는 아이템 및 판로 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장애인 자립을 돕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문턱은 높기만 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이들의 실질적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장애인 자립작업장의 안정적 매출

외국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 한해 역시 수익사업, 행정, 인사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부정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지장협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협회가 업무표장등록을 완료한 만큼 올해는 더욱 책임감을 갖고 기존 업무들을 공신력 있게 추진해 나가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애인 동지 여러분!

2013년 올해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민생안정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행복 추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우리 장애인에 어느 취약계층보다 더 차별받고 소외되어 살아왔습니다. 이번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우리 장애인에게도 행복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하며 본인도 장애인 행복시대를 열어가는데 국회의원과 지장협 중앙회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계사년(癸巳年) 새해 만사형통(萬事亨通)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김정록**

존경하는 새보람 독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가족 여러분!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계사년(癸巳年)은 60년 만에 돌아오는 흑사(黑蛇)의 해라고 합니다. 뱀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동물로 특히 흑사는 복되고 길한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모두에게 뱀의 기운이 전해져 소망하시는 모든 일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장애인 동지 여러분!

올 한해 저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참되고 실속 있게 힘써 실천하라는 도산의 무실역행(務實力行) 사상을 본받아 조직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내고자 합니다. 지난해가 우리 협회에게 변화와 혁신의 해였다면 올해는 내실을 다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다. 지장협이 지금껏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에 핵심역량을 집중해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480만 장애인과의 진심어린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 수립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장애계에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홀로 있던 중증장애인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 또

장애인들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아무리 첨단보조기기가 개발되고 보급된다고 해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는다면 장애인들은 이동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지원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해 센터의 법정기관화 추진, 직원 전문성 교육 실시, 편의증진사 자격제도 시행, 편의증진법

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급변하는 산업 패러다임 속 경쟁력 있는 아이템 및 판로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조직 운영의 투명성 유지를 통해 모범적인 장애인 단체로서의 입지를 굳혀나갈 것입니다.

조직을 이끌어어나가는데 있어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장애인 단체에 대한 일부

“계사년(癸巳年), 내실 다지는 한 해 될 것”

기존 사업에 핵심역량 집중...성과 극대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신순우 부회장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자세로 나아가야

전국의 지장협 회원 여러분!

우리 장애인들은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이거나를 막론하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는 비장애인들의 시선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고사성어에 ‘절차탁마(切磋琢磨

磨)’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뜻하는 말로 우리들이 지녀야 할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옛날 어떤 우직한 사람이

쇠몽둥이를 오랜 시간 동안 갈고 갈아서 바늘로 만들었다는 옛말이 있는데 미련한 면도 있지만 자기가 세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그 마음가짐은 우리가 본받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해 첫 날 세운 계획이 작심삼일(作心三日)이 되지 않도록 ‘절차탁마’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실력을 갖추도록 동정의 대상이 아닌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류종춘 부회장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새보람 독자 여러분 모두 새해 새로운 소망 다 이루시고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저 또한 이글로 새해를 출발하게 되어 더욱 뜻 깊은 신년인사(新年人事)를 드립니다.

필자는 지난 몇 년간 새보람 발행인을 했기에 반가운 마음의 정

情이 더해지고 여러분과 소중한 인연을 다시금 맺어주는 매개체 역할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회복지,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나 약자들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지적장애, 발달장애, 중복장애인 등 차마 죽지

못해 살며 가족을 힘들게 하는 현실 속에서 서러움과 고통을 감내하며 취업도 못하고, 취업을 해도 10~20만원도 못 받는 처지의 장애인도 많습니다. 사회가 양극화로 치닫한다고 오직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명의 햇살이 떠오르는 새해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주위를 뒤돌아보면서 더 힘들어 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함께 잘 사는 것이 진정 축복받을 일이며 여러분이 존경받는 길이고 지장협이 장애인계의 제일 큰 만행으로서 나아가길 도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신년인사와 구정 세배를 함께 드립니다. 장애인 모두에게 평화와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창환 부회장 /대구협회장

올해 지역 장애인 위한 사업 개발에 역점

이할 때는 지난날의 아쉬움과 앞으로의 설렘이 함께 느껴집니다. 새해에는 우리 지장협 회원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는 김정록 중앙회장이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시어 장애인의 정치 세력화에 있어 성공적인 한해였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탄생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대구협회도 2013년은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협회는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인권신장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장애인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새해에는 기존 사업들 중 효과성

이 떨어지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고 지역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개발해 더욱 발전하는 대구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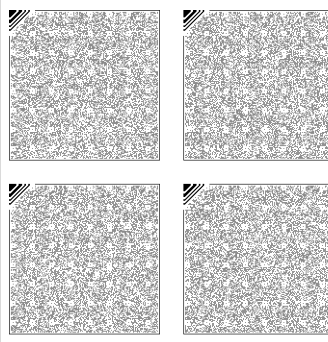
2013년은 뱀의 해입니다. 뱀은 윤회, 영생,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꿈에 뱀이 나오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하고, 뱀을 만지면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새해 초부터 연일 매서운 강추위가 전국을 강타했지만 어김없이 희망과 도약의 계사년 새해가 찬란하게 밝았습니다.

매년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

소리로 읽는 새보람



이런 풍요로운 뱀의 해를 맞아 전국 장애인동지 여러분들 모두 풍성하고 복된 한해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건휘 부회장 / 충남협회장

계사년(癸巳年), 장애인 복지 변화 기대

다사다난 했던 2012년 임진년(壬辰年)이 저물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도약으로 가득 찬 대망의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전국 장애인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지난 한 해 동안 곳곳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망의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에는 새로운 대통령과 우리

국회 및 정부활동을 통해서 문제점과 고충이 개선되고, 특히 어려운 장애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영역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서민을 위한 따뜻한 희망복지 사업으로,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각적인 취업지원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3년에는 새 정부의 공약을 통해 이러한 다각적인 복지 변화에 많은 기대를 하면서 하나 된 마음으로 전진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오한진 부회장

장애인 위해 더욱 노력하는 지장협이 되길...

뱀의 해 계사년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2012년 김정록 중앙회장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우

리는 장애인 정치세력화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지장협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장애인 문화·체육 활동 활성화 등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계사년 새해에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장애인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

는 큰 변화가 있길 기대하면서 지장협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장애인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장협 임직원 모두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계사년 한 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형종 이사 / 제주협회장

“새로운 설계, 새로운 발상으로 나아갑시다”

계사년의 새해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임진년을 뒤로하고 그 배턴을 계사년 새해가 이어 받았습니다.

이제 희망과 도전정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심 하에 새해

를 설계하여 보람되고 활기찬 새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을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긍정과 부단한 진취를 목적으로 우리들의 소임을 다 할 때 지장협은 남들보

다 한걸음 앞선 협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로운 설계, 새로운 발상으로 우리 협회가 나아 갈 길을 힘차게 힘을 모아 활로를 모색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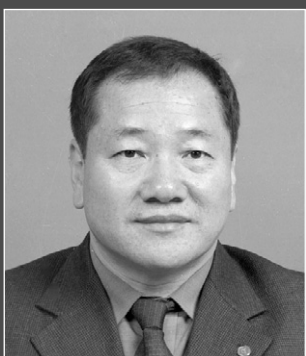
항상 어려운 장애인 가족들이

곁에 있다는 소중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목표, 그게 바로 장애인들의 복지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올 한해, 계사년을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시길 당부드립니다.

협회 가족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재홍 이사 / 광주협회장

새로운 패러다임의 장애인 복지 시행 기대

전국에 계신 장애인 동지와 회원 가족 여러분!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계사년을 맞아 우리 장애인들도 희망과 꿈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계사년은 뱀띠해입니다. 뱀은 간사스럽지만 지혜로운 동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현실 세계가 있고 진실과 거짓의 세상이 함께 공존하기에 좌절과 슬

픔, 희망과 꿈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자신이 어떤 것을 택해 나가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물론 장애인복지도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대통령이 새 시대를 열어나가 소외계층과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도 달라질 거라 생각됩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지장협 중앙회를 비롯한 16개 광역시·도협회, 232개 시·군·구지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장애인 복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 모든 회원 및 가족들에게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재권 이사 / 경북협회장

화합 · 상생 · 통합의 2013년

화합과 통합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민생, 약속, 국민대통합을 실현할 대통령과 함께 2013년을 시작하게 되어 가슴이 벅칩니다.

오랜 시간 꿈꿔온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기쁘고 설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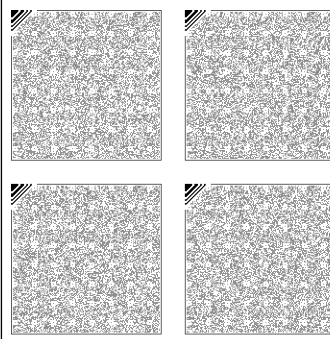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함께한 우리 장애인 모두가 새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시작하는 2013년, 우리 장애인의 삶에도 화합과 상생, 통합의 물결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장애인복지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사회 곳곳에 항상 따스한 행복과 미소가 머무는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장애인들의 나눔과 배려로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2013년 새

소리로 읽는 새보람



해, 큰 뜻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새해를 응원합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이사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장

상생의 해를 위한 힘찬 출발

사랑하는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꿈과 에너지를 품고 힘차게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장애인 여러분과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된 2013년은 상생(相生)의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상생은 모든 것이 위태롭고 불

안한 이 시대의 진정한 ‘화두(話頭)’로, 함께 공존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장애계가 당면(當面)한 많은 과제들을 상생이라는 ‘화두’를 통해 해결해 나갔으

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장애인들은 많은 어려움에도 쓰러지지 않고 오뎅이처럼 일어서는 저력을 보여 왔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2013년에도 어려울수록 강해지고, 힘들수록 지혜로워지는 우리 장애인들의 저력(底力)으로, 한층 더 강화(強化)된 강력(強力)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조향현 이사 / 대한장애인체육회 훈련원장

장애인이 잘 사는 사회를 위하여

안녕하십니까? 2013 계사년 새해를 맞아 우리 협회 임직원님, 산하 조직종사자님과 회원 여러분의 건강을 빌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1986년 12월 27일 척박했던 이 나라 장애인복지를 위해 창립된 우리 협회는 설립자이신 故 상곡 장기철 회장님의 “장애인이 잘 살고,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

다”라는 말씀이 문득 떠오릅니다.

당시 이 말씀은 장애인 복지 운동의 방향을 잡는 협회슬로건으로 전 회원이 합심해 활동한 결과 현재 장애인 문제가 국가의 중요

한 정책대상이 되는 한편 다양한 장애인 정책이 개발·보급되고 있다는 점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올해도 우리 협회는 회원들의 요구를 회무에 최우선 반영하여 장애인 문제를 선도하고 장애인이 더욱 잘 살고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함께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규달 이사 / 서울협회장

“장애인 당사자 단체로서의 역할 다 할 것”

지역 장애인 복지에 열정을 갖고 활동하시는 16개 시·도협회장님들, 구지회장 및 분회장님들, 회원 여러분들께 먼저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희망찬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일 모

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협회는 올해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통해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 공약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힘을 것이며 장애등급제 개선, 중증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충, 장애인연금제도 개선,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체육 활성화 등 여전히 산적해있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인권보장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도 각 구지회의 모든 임직원과 회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 단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해도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계사년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인숙 이사 /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오늘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2013 계사년을 맞이했습니다. 2013년은 많은 기대와 각오, 또 희망으로 더욱 새롭게 느껴집니다.

올 한해도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상당한 어려움과 혼란이 예상되는 한해인 것 같습니다. 또한 복지 환경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

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의 초석이 되고자 하는 변함없는 목표를 가지고 가는 우리이기에 전혀 흔들림 없는 차분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복지 실천 현장도 현재 당면해있는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맞춰 고령 장애인 의료 재활프로그램 활성화, 경기불황으로 더욱 심화될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통합적 지원확대, 장애인 문화향유사업의 확대, 지적장애인의 직업역량강화사업 활성화, 장애인 평생교육기회 제공 확대 등

2013년에도 많은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분주한 한해가 될듯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협회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통해 변화대응능력을 강화시키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가 치창조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역량을 발휘 해야겠습니다.

다시 한 번 협회 가족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뤄지시길 기원합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홍수 감사 / 강원협회장

복지 사각지대에 따뜻한 기운을!

지난 한 해는 4.11 국회의원 선거와 12.19 제18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5년간 우리나라의 국정운영을 앞장서서 이끌어 갈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구호만 요란한 시혜적 찔끔복지의 낡은 틀을 깨고, 좌절과 실의를 거듭해온 복지사각지대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 넣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각자 처한 위치에서 뜻과 힘을 모읍시다.

여성의 섬세함과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정성으로 펼쳐 나갈 새로운 복지 혜택이 우리 장애인 동지들 가슴에 굴절 없이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지난 해 우리 협회가 이룩한 최대 성과는 김정록 중앙회장님이 국회의원으로 뽑혀 국회에 입성하신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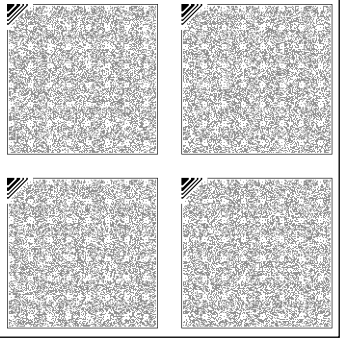
이는 정치세력화의 노력이 값진

열매를 맺은 쾌거로서, 장애인당사자단체의 중심임을 재확인하는 전기가 되었습니다. 중앙회장님이 다양한 입법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당당한 사회 주역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활로를 열어 가실 수 있도록 성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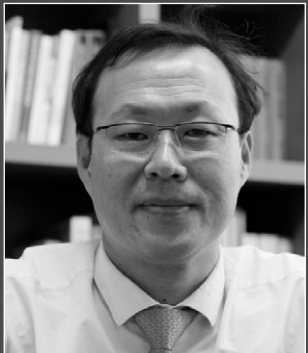
올해 갖는 우리의 푸른 소망이

장애인 동지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각 가정마다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꽃피고 그 성과를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거듭 회원 동지 여러분의 분발과 건승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동욱 감사 / 변호사

“계사년, 장애인 위해 최선의 노력 기울일 것”

존경하는 전국의 지장협 회원여러분!

2013년 다산과 풍요, 번영을 상

징하는 뱀의 해인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국민 모

두가 행복한 나라, 장애인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불어 행복해 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모두 합

께 노력하고 서로 힘이 되어 주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미력하나마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회원여러분과 함께 우리 협회의 발전과 전국의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모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김광표 협회장

계사년, 장애인 복지선진화 원년의 해

사랑하는 전국장애인 가족 여러분! 계사년(癸巳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중앙회장 및 임직원 여러분과 월간 새보람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뱀띠의 해입니다. 우리 민족은 뱀을 수호신으로 숭상시키며 특히 영생과 불사를 뜻하는 뱀은 생명을 지켜주는 상징으로 표현하면서 많은 알을 낳는 뱀의 다산성은 풍요와 재물, 가복의 신이며 생명 탄생과 치유의 힘, 지혜와 예

언의 능력, 끈질긴 생명력과 짝사랑의 화신으로도 불렸다고 합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많은 변화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에 두려워말고 우리들의 역량을 결집한다면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우리의 뜻을 꺾지는 못할 것

입니다.

올 한해 계사년 뱀띠 해를 맞아 더욱더 장애인의 복지선진화로 나아가는 원년의 해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사년(癸巳年) 새해를 맞아 다시 한 번 우리 장애인 가족 여러분의 건강한 삶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박창영 협회장

장애인 모두의 윤택한 삶을 위해 최선을!

친애하는 지체장애인과 가족 여러분!

희망찬 2013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해 장애인 복지를 위해 헌신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

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2년은 국가적으로 참으로 소중하고도 값진 성과를 이루어낸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새해에는 지역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재활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장애인의 인권옹호와 사회참여기회의 확대, 장애인에 대

한 인식을 확산시켜 사회전체가 관심을 가지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협회는 기존사업을 중심으로 장애인당사자의 원칙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에 있어 장애인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전반적인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것

이며, 행정조직의 체계화, 담당인력의 전문화를 통해 협회를 활성화시키고 지회별 수익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 지역 장애인 모두가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협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3년 계사년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윤석연 협회장

계사년, 행복한 열매 맺으시길...

더욱 뜨거운 열정과 밝은 희망으로 열어갈 우리 지장협의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임진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협회를 위해 힘써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지장협에는 참으로 희망적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중앙회장님의 비례대표 당선으로 장애인정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인권 향상에 한 단계 도약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고 전국의 지체장애인들에게 자신

감과 자부심을 주었으며, 우리 협회의 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대전협회에서도 새롭게 후원회를 만들어 협회에서 주관하는 장애인합동결혼식, 한마음대축제 등의 행사에 인적·물적 후원을 아끼지 않아 2012년 협회에서 주관

한 행사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였고, 그 어느 해 보다 대전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한해로 평가되었습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전국의 지장협 회원들이 더욱 하나로 뭉쳐 우리가 가진 힘을 바탕으로 잘못 된 곳은 바로잡고, 필요로 하는 곳에는 나누어 줄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이라는 작은 씨앗을 잘 키워나가 행복이라는 열매를 수확하시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정임숙 협회장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한 해를 위해

희망찬 2013년 계사년의 해가 찬란한 빛을 내뿜으며 활기차게 떠올랐습니다. 작년 한해 여러 회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격려로 계사년의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울산협회에서는 회원 여러분들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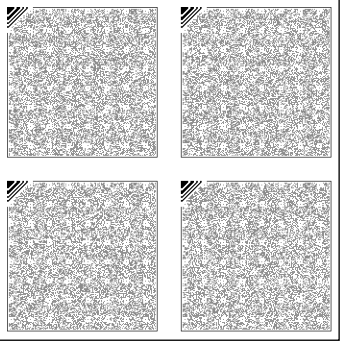
셋째, 사회적 활동과 문화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장애인들의 열린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장애인들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 문제를 듣고 해결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능동적으로 협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2013년 계사년에는 보다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울산협회가 될 것

소리로 읽는 새보람



을 다짐하며 전국 480만 장애인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행복과 만복이 깃드시길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기호 협회장

희망 가득한 계사년(癸巳年)

지장협 중앙회장님 이하 임직원, 산하 시도협회장님,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분들, 또한 장애인 복지 발전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희망찬 새해를 기원 드립니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임진년(壬辰年) 한 해가 저물고 파사로운 계사년(癸巳年) 밝은 빛이 온 누리를 비추입니다.

경기도협회는 지난 한 해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장애인 축제한마당, 사랑의 김장 나누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장애인 인권센터와 장애인보장구수리 기술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또한 산하 지회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과 장애인 일자리창출 목적의 즉석도정기 사업 등 산하 지회 지원 사업에도 힘

썼으며 사무실 이전, 후원회 발족, 각종 세미나 및 종사자 실무교육 실시 등 우리협회가 양질의 발전을 하도록 노력하며 보람찬 한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임진년 한 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로 맞이하는 계사년에는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가내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체장애인협회 변창수 협회장

낡은 허물 벗고 다시 태어나야 할 때

2013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협회에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떠오르는 태양처럼 거침없고 시원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2012년 장애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장애인활동보

조에 대한 법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변경되어 확대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활동보조인에 대한 시간적인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고 장애인 등급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한 여전히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인 저상버스와 콜택시의 증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장애인 복지 증진에 대한 개선책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의 장벽은 늘 높다는 것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사년은 뱀의 해입니다. 뱀은 일정 시기가 되면 허물을 벗고 본디 뱀의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뱀은 허물을 벗어야만 성장하고 허

물을 벗지 않으면 죽고 마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낡은 사고와 제도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충북협회도 이제는 낡은 허물을 벗고 진정한 협회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해 즐겁고 기뻐했던 일은 가슴 속에 추억으로, 좋지 않았던 기억은 저 하늘에 날려버리고 2013년에는 하시는 일마다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박경철 협회장

“계사년, 더욱 성숙한 협회로 거듭날 것”

임진년 한해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님이 되어 역사의 흐름 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우리는 이제 떠난 님을 그리워하기보다는 앞에 우뚝 서있는 계사년이라는 새로운 님을 만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월의 흐름은 우리들에게 만남

이 있으면 헤어짐을 알게 하는 깨우침을 주는 듯합니다.

2012년은 다사다난했던 만큼 가뭄, 홍수, 열대야 등 자연의 위대함을 새삼 느꼈고 총선을 비롯한 제18대 대통령을 선출하기도 했던 한해였습니다.

올해는 제 자신부터 좌로나 우

로 치우치지 않고 눈으로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귀로는 여러분들의 좋은 충고를 귀담아 들어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고 듣는

다고 들리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진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리는 것입니다.

올 한해 회원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관심에 눈높이를 맞춰 조금 더 성숙한 전남협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 뜨는 해는 우리들의 큰 뜻입니다. 새해에 부는 바람은 우리의 힘찬 기운일 것입니다

넓은 세상에 뜻을 비추고 씩 없는 기운으로 내달릴 계사년의 새 희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 이상식 협회장

꿈꾸며 미래 여는 2013년 한해가 되시길

2013년 계사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먹이를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뱀의 날카로운 이빨처럼 2013년 새해에는 목표한 바를 놓치지 않고 모두 이루어 내시길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선거라는 대국민적 행사가 있었습니다.

2013년 계사년,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바뀌게 됨에 따라 급변한 해 우리나라도 큰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리라 짐작되는 가운데, 장

애인복지 분야는 국회로 진출하신 김정록 중앙회장님을 구심으로 우리 장애인복지의 발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여겨지며, 그 어느 해보다 회원여러분들에게는 많은 희소식이 전해지는 한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저 또한 우리 경남협회 회원들에게 많은 혜택과 희소식이 전해질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불철주야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2013년 한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모두 이룰 수 있는 계사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장협, 업무표장등록 완료

책임감 갖고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표장등록을 완료했다.

지장협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 사회참여확대, 권익 및 자립 도모 등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기존 사업들을 보다 더

공신력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 업무표장등록을 출원하여 12월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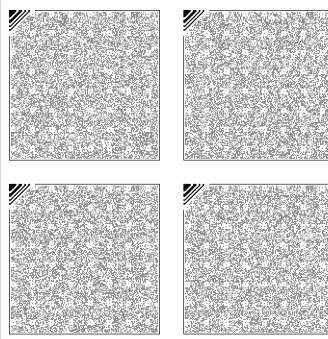
지장협이 표장등록 한 것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사업'을 비롯한 총 13건의 사업과 협회 명칭, 로고 등이다.

이에 따라 지장협은 13개의 업무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며 이와 유사한 사업행위

는 물론 명칭 또는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제65조~제70조에 의거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지장협 관계자는 "이번 업무표장등록을 계기로 더욱 장애인 단체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지장협 장애인종합민원상담실, 이용자 만족도 높아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민원상담실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장협이 장애인종합민원상담실을 이용했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응답자의 91%가 상담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취득했다고 응답했다.

상담유형은 복지정책이 31%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등록 22%, 수급선정이 16%로 뒤를 이었다.

지장협 장애인종합민원상담실에서는 사회복지 전문상담사가 장애인의 생활고충과 불편사항에 대한 처

리방법을 제시하고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민원인들이 민원사항을 언제든지 불편함 없이 제기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하고 있다.

지장협 관계자는 "장애인종합민원상담실이 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2013년 달라지는 복지정책에 대한 정보제공은 물론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장협 장애인종합민원상담실은 지장협 홈페이지(<http://www.kappd.or.kr/>) 또는 전화(02-796-4280)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계사년 새해 지장협의 힘찬 출발

“2013년, 진정성 갖고 장애인 위해 헌신해야”



김정록 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직원들이 협회 발전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기원하며 케이크커팅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 중앙회가 시무식을 갖고 2013년의 힘찬 첫 발을 내디뎠다.

지장협 중앙회 임직원 30여명은 1월 2일 여의도 이룸센터 다목적실에서 열린

“2013년 시무식”에서 올 한해도 지장협의 발전과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땀을 다짐했다.

이날 시무식에서 김정록 중앙회장은 “2013년 새해에는 모든 임직원들이 진정성을 갖고 장애인들의 애로점을 헤아

리고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 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장협의 발전을 위해 서로 화합하고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자기 능력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힘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부산협회 김광표 협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장애인들의 소망을 담은 종이학을 전달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김광표 협회장은 지체장애인들의 소망을 대통령 후보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지난 12월 14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부산지역 합동유세에 참석했다.

부산협회 김광표 협회장은

이날 부산시장장애인연대 대표로 참석해 장애인 복지사회구현을 바라는 장애인들의 마음을 담은 종이학 2013마리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한편 이날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체장애인 2000여명이 자리해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건설을 염원했다.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41호 2013년 1월 15일

회 장 · 발행인 / 김정록 편집장 / 이경선 기자 / 김금주 발행처 /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kappd@kappd.or.kr

대표전화:(02)796-4280 FAX:(02)796-428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경북여성장애인활동가 리더십 역량강화대회’ 실시

임명장 수여식 및 역량강화 교육 진행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경북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장재권)는 12월 17일 경북 23개 시·군지역 여성장애인활동가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2년 경북여성장애인활동가 리더십 역량강화대회’를 실시했다.

여성장애인들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정보공유 기회 마련, 이들의 사회성 향상 도모를 위해 마련된 이날 대회에는 김정록 중앙회장을 비롯한 경북협회 23개 시·군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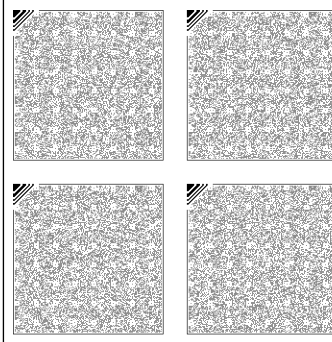


김정록 중앙회장, 경북협회 장재권 협회장을 비롯한 여성장애인활동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여성장애인활동가 단장 및 부단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과 역량강화 교육으로 진행됐다.

경북협회 장재권 협회장은 “앞으로 여성장애인활동가 단장

소리로 읽는 새보람



및 부단장이 주체가 되어 여성의 역할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경북 여성장애인 복지를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경북협회는 여성장애인들이 자립, 인권, 취업, 육아 등에 있어 문제점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여성장애인활동가 단체를 결성했다.

‘충청남도 장애인편의시설 실무자 워크숍’ 개최

센터 발전 방향 모색 시간 가져

충남지체장애인협회

‘2012 충청남도 장애인편의시설 실무자 워크숍’이 12월 13일부터 15일 까지 속초시 한화리조트에 열렸다.

충청남도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발전과 실무자들의 역

량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는 센터요원 40여명이 참여했다.

워크숍에서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충남지원센터 이견희 센터장의 특강과 도 편의시설지원센터 우인숙 행정담당관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령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또한 설악산 국립공원을 직접 방문해 장애인편의시설의 접근성을 조사하고 센터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사회적응프로그램 우수기관에 선정

창업교육 및 심리기능향상 프로그램 운영



산재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아산장북의 사회적응프로그램 실시 모습.

아산시장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장북)이 군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에서 주관하는 ‘2012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로복지공단은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한 기관 중 최우수기관 1곳과 우수기관 2곳을 선정하고 있다.

아산장북은 2012년 아산시와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창업교육과 도자기공예, 노래교실, 가족나들이 등 심리 기능향상 프로그램을 진행

해 산재장애인들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아산장북 이창호 관장은 “다가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2013년도 사회적응프로그램도 알차게 준비해 산재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오는 3월 1일부터 2013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를 모집하며 궁금한 사항은 아산장북 직업재활팀(☎ 041-545-7727)로 문의하면 된다.

‘1만 장애인과 함께하는 겨울나기’

장애인들에게 월동물품 전달

정읍시장장애인복지관

정읍시장장애인복지관(관장 박종형, 이하 정읍장북)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든든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1만 장애인과 함께하는 겨울나기’ 활동에 나섰다.

정읍장북은 지난 10월부터 지역사회축제 및 정읍 시내 곳곳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지역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연탄, 김치, 담요 등 월동물품을 마련해 12월 14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장애인들에게 전달했다.

월동물품을 지원받은 한 장애인은 “요즘 처럼 추운 날이 많을



지난 12월 14일 관내 장애인들을 위해 연탄지원에 나선 정읍장북 관계자들.

때는 연탄을 아끼려 간신히 냉기만 없애고 사는데 연탄을 지원해줘 올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읍장북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어도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일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의 장애인 관련 정책

장애계, 박근혜 정부 공약 이행 여부에 관심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지난 12월 19일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체 3072만여 표 중 51.6%인 1577만여 표를 얻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를 누르고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됐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장애계에서도 박 당선인의 장애인 정책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 전 '2012대선장애인연대'가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12대 요구 공약을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며 18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에도 이를 다수 반영했다.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개선

첫 번째로 박근혜 정부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를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장애등급제와 의료적 기준에 의한 획일적 서비스 전달 체계 등으로 장애인의 요구와 필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등급제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장애등급제가 등급심사비용 부담과 장애등급 하락의 불안감으로 서비스 신청 기피 현상이 야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보장 이행의 뜻도 밝혔다. 하루 24시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서비스 상한제로 인해 서비스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현행 장애인활동지원 적용 대상 및 급여량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부모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 지원 및 확대를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박근혜 캠프 홈페이지

한편 지난해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후 홀로 있던 중증장애인이 화재 등으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활동보조서비스의 문제점이 다시 한 번 부각되면서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계 핫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 발달장애인법 제정

또한 새누리당이 제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만큼 발달장애인법 제정 약속을 지킨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 이루어져 왔으며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다른 어떠한 법률에도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구체적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감안, 발달장애인법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환경개선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환경개선 공약도 적극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수화에 관한 낮은 인식 수준으로 농아인들이 수화를 기반으로 의사소통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교육현장에서 농아인을 교육의 대상자가 아닌 재활의 대상으로 보고 청능재활과 언어치료 등에만 집중해 학문적 성취와 직

업적 성취에 제한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한국수화의 언어적 지위를 보장하고 수화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 문화·정보접근권 보장과 농아인의 언어적 권리 확보를 통한 농아인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박근혜 정부는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등의 운영규모를 법정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공약도 내놔다.

현재 저상버스가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도입률이 12%로 낮아 장애인의 이동권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를 예산에 반영함은 물론 장애인과 일반국민들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공약했다.

■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

박근혜 정부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고용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 고용을 제고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9%, 고용률은 36%로 전체 국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민간기업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2% 정도이지만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8%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부문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달성하도록 할 것임을 약속했다.

■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박근혜 정부는 향후 5년간 특수학교 및 학급을 확충하고 특수교원을 증원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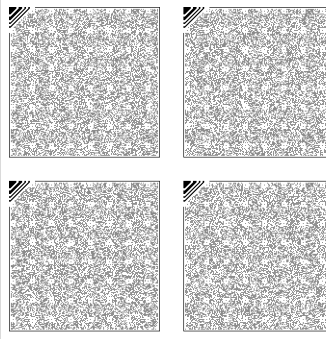
또한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를 확대해 능력있는 특수교육 교사를 양성하고 교과부가 운영 중인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을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전환할 예정이다.

■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

박근혜 정부는 2018년 까지 공공임대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특별분양 등 장애인 대상 공공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추진하고 장애인 주거정책을 위해 관련 부처 간 공조체계를 마련할 것도 약속했다.

장애인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많은 장애인들이 주거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의 공공임대주택 진입이 어려워 주거 대책 마련의

소리로 읽는 새보람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장애인의 건강을 위해서는 재활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2차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특성에 맞는 치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놔다.

또한 권역별 재활병원을 확충해 재활중심 거점보건소 확충 추진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이 일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의료비를 2년간 지원하는 '이행급여제'를 적용·실시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정신보건 사업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 장애인 문화권리 국가 보장

박근혜 정부는 장애인들의 문화권리 보장에도 나선다는 입장이다.

장애인들의 사회문화 활동수준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고 특히 문화예술체육활동은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감안해 장애인 문화예술창작아트페어 개최를 약속했다.

또한 문화예술 강사 및 스포츠 강사, 장애인시설 파견을 확대하고 문화체육시설에 장애인 특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공 문화체육시설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위한 개보수 지원 등도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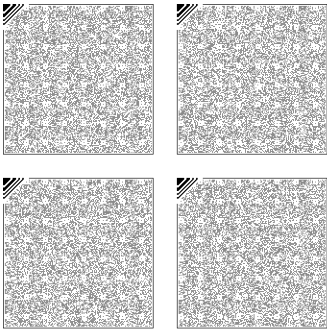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

박근혜 정부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향조정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공제 및 재산유형별 환산유류 등 재산의 소득 환산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도 내놔다.

그러나 장애계는 끊임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Voiceye Saeboram News

소리로 읽는 새보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의원

김정록 의원, 2012년 입법 우수의원에 선정

“사회적 약자 위한 정책개발에 힘쓸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이 뛰어난 의정활동으로 ‘2012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회는 매년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입법, 의정 및 정책 개발에 남다른 두각을 나타낸 의원을 선정

해 시상해 왔다.

김정록 의원은 19대 국회의 제1호 법안인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18건의 입법활동과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률 100%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19대 국회 첫 임기인 올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

이와 관련해 김정록 의원은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며 “2013년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및 정책개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발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에 있어 장애인 차별 관행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만들기 위한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1월 10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험사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는 보험 관련 의학·통계적 연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장애인

장애인 보험차별 사례 및 기준 제시 차별 입증 책임 및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

에 대한 보험차별이 되는 사례와 그에 대한 기준을 단계별로 나눠 제시하고 그동안 모호했던 차별의 입증 책임과 정당한 사유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가이드라인은 장애를 이유로 보험 상담 또는 심사 자체를 거

부하거나 보험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낮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 장애인에게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을 차별행위로 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차별 분쟁에서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도록 하고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보험회사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는 보험인수, 유지, 보험금 지급 등 단계

에 따른 차별 사례도 예시되어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을 비롯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각종 공제조합 및 외국보험회사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권고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그동안 지속되어 온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 중도 보험계약 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의 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권익위, 복지부에 장애연금 수급 대상자 범위 확대 권고

국민연금 가입자 → 10년 이상 연금 보험료 납부했던 자

장애연금의 수급대상자가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10년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던 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월 7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오랫동안 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라도 경제적 사정으로 연금 보험료를 미납해 현재 ‘적용제외자’인 사람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한 후두 적출, 심장·신장·폐 이식, 장루·요루 장애 등 일

부 상병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판정시기와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이 달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판정을 받더라도 장애연금은 상당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장애연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10년 이

상 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던 자’ 등으로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판정시기와 국민연금법상 장애인연금 지급사유발생일 간 격차가 큰 일부 상병에 대해서는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판정시기로 조정했다.

또한 말기암 환자 등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까지 생존이 불확실한 가입자의 지급사유발생일은 조기확정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향후 국민연금법 등에 반영될 경우 사회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공단 비리의혹 관련자 형사고발

고용노동부는 장애인보조공학기기 납품관련 비리의혹을 조사해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전·현직 직원 2명을 징계 및 형사고발 하도록 조치했다고 지난 12월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감사결과, A씨(2010년 8월 퇴직)는 201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무 당시 맞춤형보조공학기기 납품업체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심사위원을 임의로 구성했고, 납품업체가 맞춤형보조공학기기 제작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묵인한

채 사후에 제작 장비를 갖추도록 은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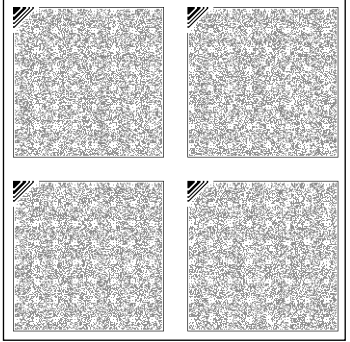
또한 공단 규정상 본인이 계약담당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업무에 관여하면서 특정업체에 계약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특혜를 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A씨가 특정업

체에 특혜를 주면서 그 대가를 받았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의 상급자인 B씨는 맞춤형보조공학기기 계약 업무에 대한 권한이 없는 A씨에게 계약을 추진하도록 지시하는 등 회계규정을 위반 하고 보조공학기기에 대

소리로 읽는 새보람



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징계 및 형사고발하도록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공직 비리 척결을 위해 앞으로도 비리의혹이 있는 공직자는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성인발달장애인, “나의 삶은 나의 것”

한발연, 장애인 당사자 토론회 개최



성인발달장애인들이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차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발달장애인도 일할 권리가

있어요”

성인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 옹호를 위해 서로 솔직한 생각과 의견을 교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장애인가족연구소(이하 한발연)는 12월 2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

서 ‘성인발달장애인의 『나의 삶은 나의 것』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성인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생각을 직접 표현하는 자리를 통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한발연이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성인발달장애인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권리옹호 교육 및 활동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어 성인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토론회에 직접 참여해 차별, 직업 및 소득, 주거와 결혼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이윤수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이 당사자성을 확보하고 비장애인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자리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정록 국회의원은 “본인도 장애인 당사자인 만큼 장애인들에게 애착을 느낀다”며 “장애인들이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 법 제정, 예산확보 등을 위해 힘써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본인이 제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내년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김수진 소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대한 정부시책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발달장애인을 동정이 아닌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청,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편

시·청각장애인 접근성 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의료기기업을 처음 준비하는 민원인이 허가절차는 물론 관련규정 및 준수사항 등을 손쉽게 익힐 수 있도록 ‘의료기기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올해 새롭게 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기 법령의 이해, 허가·신고·심사 절차의 이해, 품질관리(GMP)의 이해, 사후관리의 이해 등이다.

특히 민원인이 친근하고 흥미롭게 학습 할 수 있도록 화면구성을 시각적으로 변경하고 의료

기기의 올바른 사용 유도를 위해 용어사전 기능을 추가했다.

시각장애인도 스크린리더기를 통해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 과정의 PDF파일을 첨부해 청각장애인의 접근성도 제고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민원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법령·고시 등의 내용을 업데이트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fda.go.kr/medicaldevice/medicyber)에서 확인가능하다.

IT 보조기기 마음껏 체험하세요!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활용관 개소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엔젤스헤이븐에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활용관’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장애인들이 신체적 장애로 정보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크린리더, 지체·뇌병변장애인을 위한

특수마우스·키보드 등 다양한 종류의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고 고가의 수입제품 대체를 위해 국내 기술개발을 지원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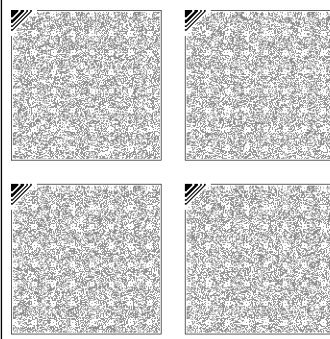
이번에 개소한 엔젤스헤이븐에는 지체·뇌병변장애, 청각·언어장애, 시각장애 등 다양한 유형에 적합한 특수키보드, 점자정보단말기 등 총 37종의 정보통신보조기기가

마련되어 있다.

엔젤스헤이븐은 이용자들에게 장애수준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추천하고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에 대한 안내와 보조기기 지원신청서 작성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201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실무자 워크숍 개최



‘201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실무자 워크숍’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는 지난 12월 21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12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장협은 교육을 통한 실무자들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와 상호교류를 통한 시설 발전 도모를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실무자 워크숍’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장협 박종현 시설지원팀장의 ‘직업재활시설 회계처리 방법’, ‘직업재활시설 인사 및 총무업무 사례’에 대한 강의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이해경 선임연구원의 ‘직업재활시설 평가기준 개발에 따른 향후 대응전략’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한편 중앙회 김태호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설의 발전을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실무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실무자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워크숍을 통해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 평소에도 실무자 스스로 자질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빠른 사회 변화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장협은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이들

의 실질적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 고용사업장 60여 곳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지장협 산하 춘천시장애인근로사업장과 보령시장장애인보호작업장이 우수한 활동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지장협 중앙회 김태호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통해 실무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장협 박종현 시설지원팀장이 ‘직업재활시설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201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실무자 워크숍’ 참가자들이 강의에 참여하고 있다.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부터 개선되는 장애인 관련 제도

정부는 지난 12월 올해부터 변경되는 제도들을 총망라한 ‘201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보건복지·여성, 고용노동, 교육·문화 등 각 분야별로 올해부터 개선되는 점들이 정리되어 있으며 장애인 관련 제도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2013년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관련 제도들에 대해 알아본다.

■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연금지원 확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1월부터 2012년 55만원에서 58만원으로 3만원 인상되고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2012년 43만원에서 2013년 45만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가 월2만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 64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원에서 8만원, 차상위계층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15만원에서 17만원을, 차상위계층은 5만원에서 7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18세 이상 64세 미만 차상위초과 계층은 2만원을 지급받게 되고, 65세 이상 차상위초과는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 1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2급으로 확대되며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기본급여가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된다.

또한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출산·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추가급여가 지급된다.

아울러 활동보조서비스의 시

간당 금액 인상, 원거리 교통비 지급대상 지역 확대 및 금액 인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이 용이해진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등록 시행

재외동포와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은 국내인에 한해 가능했으나 1월 27일부터는 재외동포와 외국인도 국내인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등록대상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결혼 이민자 등이다.

■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장애아동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대상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서비스 대상의 소득기준을 기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해 9천명의 아동들이 추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장기적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해 만18세 미만의 모든 중증 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기관 확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된다.

4월 부터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및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은 장애인 교육 및 정보통신, 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교육기관 이용 및 정보접근에 있어 편의성이 증대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차등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난 12월부터 차등 적용되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를 100명 미만,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00명 이상으로 나눠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15,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이상~300명 미만일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10%+5명,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5%+20명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및 산정기준 세분화

1월부터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이 인상되고 기업 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정도의 격차가 부담금 산정에 잘 반영되도록 부담기초액 산정기준이 더 세분화된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3/4 이상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626,000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1/2 이상~3/4미달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의 1/4을 가산해 월 782,5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의무고용 인원의 1/2미달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의 1/2을 가산하여 월 939,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015,740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그 대상이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199명을 고용한 사업주까지 확대된다.

■ 장애대학생에게 기업직무 체험 기회 제공

장애대학생에게 취업 전 기업에서의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 역량을 높이고 장애대학생 기업 연수제를 실시한다.

재학·휴학 중인 대학생들이 1~2개월간 사업체,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연수받도록 지원하며 연수생에게는 월 400,000원, 참여 중소기업에게는 기업연수 지원금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

■ 특수학교 학생에게 일반사업체 현장실습 훈련 지원

장애를 가진 고등학생을 위한 지원고용형기업연수제가 1월부터 실시된다.

특수학교 3학년생 및 전공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3~6개월간 직무지도원을 배치해 일반사업체에서 현장실습 훈련을 받도록 지원한다.

또한 연수생에게는 1일 12,000원, 사업체보조금 1인당 1일 17,650원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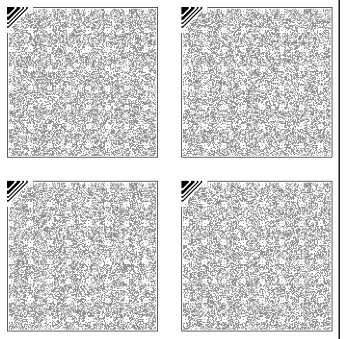
■ 워크투게더센터 전국 확대 운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개 지사에서 시범 운영하던 워크투게더센터를 전국 권역별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장애학생에 대한 서비스가 각 부처별로 제공되었으나 1월 부터는 워크투게더센터를 통해 학교교육, 복지, 일자리 등과 연계해 장애학생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수학교, 학급, 전공과 및 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고등부 장애학생에게 직업설계컨설팅, 직업훈련체험, 직업훈련기관 연계, 구직역량강화, 현장체험, 학부모 설명회, 장애인식개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청각·언어장애인 위한 ‘107 손말이음’ 개통

청각·언어장애인이 전화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신중계서비스가 1월부터 ‘107 손말이음’으로 새롭게 거듭난다.

지금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성, 영상, SMS 등 통화종류와 통신사별로 서로 다른 번호를 사용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단일 번호 107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장애인 등록자에 대한 병역감면 절차 강화

장애인 등록자에 대해 병역면제 처분 이후 장애등록 취소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병역감면 절차가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는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장애등록 사실 등을 확인해 병역면제처분을 하고 처분 후 장애상태 호전 등에 따른 장애등록 취소 여부에 대한 별도의 확인 절차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 12월부터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고 징병검사 연령인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을 위한 장애인단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의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병역처분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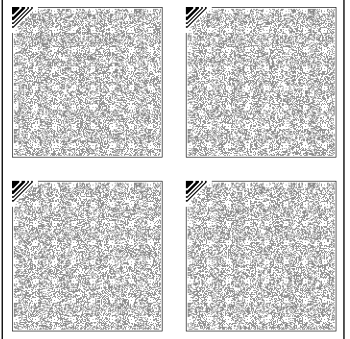
■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법무부는 7월부터 의사소통이나 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장애인과 아동의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진술조력인을 양성한다.

양성된 조력인은 내년 1월부터 조력이 필요한 장애인과 아동을 위해 수사나 재판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으로 성폭력 피해 장애인과 아동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실제진실 발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인 여행정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국내 최초 장애인 여행 웹 & 앱 오픈



'함께하는 여행' 스마트폰 앱 화면.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창)는 1월 3일 장애인을 위한 국내 최초 여행 웹사이트 '함께하는 여행'을 공개했다.

‘함께하는 여행’(access. visitkorea.or.kr)은 국내 여행지, 숙박, 음식점, 대중교통, 여행 등에 대한 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체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여행정보가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또한 장애 유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여행지의 편의시설 항목을 픽토그램으로 표시하여 장애인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여행정보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웹사이트와 함께 아이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도 동시에 공개돼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여행 정보를 찾아 볼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여행정보가 없어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여행에 불편을 겪었다”며 “장애인을 위한 여행정보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개로 장애인들이 여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도 뽀로로 · 남극의 눈물 즐긴다!

시각장애인기관 및 공공도서관에서 무료 대여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최동익)는 지난 달 ‘뽀롱뽀롱 뽀로로’, ‘남극의 눈물’ 등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화면해설 DVD 29개 세트를 전국 시각장애인기관 및 공공도서관 200여 곳에 무료 배포했다.

이번에 배포된 DVD 세트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시행하는 ‘2012년도 장애인 대

로 선정되어 제작했다.

DVD 세트에는 교육적 가치가 높은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교양물 등으로 구성된 50편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작품목록은 시각장애 아동, 청소년, 성인 등 시각장애인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됐다.

DVD의 개인 시청을 원하는 시각장애인은 각 기관을 통해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홍명보 감독, 스페셜올림픽 홍보대사 위촉 “많은 사람이 평창 찾도록 노력할 것”



나경원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장과 홍보대사로 위촉된 홍명보 전 올림픽축구대표팀 감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홍명보 전 올림픽축구대표팀 감독이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회(위원장 나경원)는 1월 4일 서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홍명보 전 감독을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위촉식을 진행했다.

위촉식에 참석한 홍명보 전 감독은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홍보대사를 맡게 되어 영광”이라며 “열심히

홍보해 많은 사람들이 평창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명보 전 감독은 위촉식에 함께 참석한 지적장애인 선수와 대학생 서포터즈에게 친필 사인과 축구공을 전달했으며 이들은 감사의 표시로 홍명보 전 감독에게 스페셜올림픽 배지와 목도리를 선물하기도 했다.

한편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은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5일 까지 8일 동안 강원도 평창 및 강릉 일대에서 열리며 대회 입장권은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배너창 또는 인터파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장애인체육 올해의 선수는?

전민재 선수, 온라인 투표에서 최다득표



‘2012 장애인체육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전민재 선수. ©대한장애인체육회

런던장애인올림픽 육상경기에서 감동적인 레이스를 펼쳤던 전민재 선수가 네티즌이 뽑은 ‘2012 장애인체육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런던장애인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12명의 후보 중 올해의 선수를 선정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벤트에는 총 522명의 네티즌이 참여했고 투표결과 전민재 선수는 202표를 얻어 지난 런던장애인올림픽 육상 100m와 200m 은메달, 올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MVP 수상에 이어 네티즌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는 영광을 안게 됐다.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전민재 선수는 지난 12월 31일 대한장애인체육회 종무식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장상을 수여받았다.

이웃사랑 실천하는 새보람 요양병원

또 하나의 가족!

가족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새보람 요양병원은 도심속에서도 자연친화적인 병실환경과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희망을 안겨주는

재활요양치료 전문병원입니다.

내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가 운영하고 있는 새보람 요양병원은 장애인 행사 의무대 활동지원, 장애인 방문의료서비스, 복지관과 협력한 지역연계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신경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작년 5월부터는 지체장애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정형외과

이 외에도 병원생활에 무료해지기 쉬운 환자들에게 삶의 희망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 매주 월요일 오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웃음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재활의학과

새보람 요양병원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에게 신뢰받는 병원으로서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이웃사랑 실천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한방과



장애인 행사 의무대.



맞춤식 재활치료 프로그램.



웃음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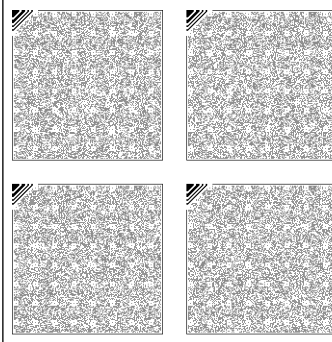


어버이날 행사.

대표전화 02.3492.7888



소리로 읽는 새보람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30대 증차

대기시간 줄여 이용불편 해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용선, 이하 공단)은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 장애인 콜택시를 30대 늘린데 이어 12월 30대를 추가 증차했다.

공단에 따르면 1·2급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의 평균 대기시간은 29분이었으며 이용수요가 적고 운영

편수가 줄어드는 오후 5시 이후에는 40분~50분이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 12월 투입한 차량들을 오후 5시 이후에 우선 배차해 장애인들의 대기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

하기 2시간 전 콜센터(☎1588-4388)를 통해 미리 예약하면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이 실제 지난해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의 일평균 대기시간을 분석한 결과 2시간 전에 접

수하면 평균 23분을 기다리는데 반해 1시간 전 접수하면 42분, 즉시 접수하면 73분이나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앞으로 장애인 콜택시의 지속적인 증차뿐만 아니라 사전예약제 정착 등을 통해 2014

년 까지 차량 신청 후 30분 이내 탑승비율을 90%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안산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협약’ 체결



안산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2월 28일 안산시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협약식’을 가졌다.

안산시(시장 김철민)는 지난 12월 28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안산시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안산시에서는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건립공사비를 부담하게 된다.

안산시 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자활능력 향상과 장애인단체 회원 간 정보교류를 위한 시설로 20억원의 건설공사비가 투입돼 상록구 사동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단체별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 마련으로 장애인들이 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양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센터로 신청

고양시(시장 최성)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1월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고양시에 거주하고 부모 중 한 명이 장애인(1급~6급)인 가정이다.

지원액은 가정 당 100만원이며 쌍생아 이상의 경우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50/100을 가산해 지급하며 다른 법령에 의해 출산지원금을 받는 경우(세 자녀 이상)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로 출생증명서,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 등의 비용과 다와 직장과 육아의 양립문제, 만혼 풍토 등으로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고양시에서는 출산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경감을 위해 각종 복지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제시, 무료 시민정보화교육 실시

거동 불편한 중증장애인은 방문 교육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시민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 달부터 ‘2013년도 시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

인터넷, 한글·엑셀, 자격증 취득, 최신정보화 분야 등 다양한 교육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주 또는 3주 동안 오전, 오후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옥포와 장승포교육

장에서는 만55세 이상을 위한 실버반을 운영해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은 컴퓨터 강사가 직접 방문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화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수강 희망자는 교육수강한 달 전 교육일정을 참고해

거제시민정보화교육 홈페이지(edu.geoje.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화(☎055-639-4015) 신청도 가능하다.

여경상 정보통신과장은 “정보화 소외계층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호남권역 재활병원 개원준비 착착

양·한방 협진으로 맞춤형의료서비스 제공 기대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개인별 장애 유형에 맞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호남권역 재활병원'을 오는 1월 23일경 정식 개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호남권역 재활병원'은 총 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돼 북구 본촌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 호남권 유일의 공공장애재활 전문치료기관이다.

광주시는 지난 2008년 5월 재활병원 건립도시로 선정되어 2010년 3월 재활병원 건립 공사에 착공, 지난해 7월 공사를 마무리 하고 12월부터 시범진료 중에 있다.

'호남권역 재활병원'은 조남수 前 조선대학교병원장(응급의학과 전공, 60세)을 병원장으로 임명하고 재활의학과와 한방재활과 2개 진료과목을 개설



호남권역 재활병원 조감도. ©광주광역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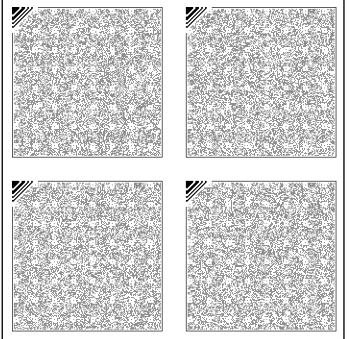
했다.

아울러 장애 유형에 따른 단계

별 치료가 가능한 570여종의 최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해 성인은

물론 소아환자의 외래 및 입원
치료 등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제

소리로 읽는 새보람



공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가고 있다.

특히 '호남권역 재활병원'은 타 권역 재활병원과는 달리 뇌 신경질환, 척수손상, 근골격계 질환 등의 환자를 대상으로 양·한방 협진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시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재활병원은 장애 진단, 재활 관련 치료와 교육, 상담 등 장애에 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지역 장애인은 물론 그 가족과 시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재활의 희망을 주는 병원 그 이상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발달장애아동 부모 지원 확대

전문 심리상담 및 치료 기회 제공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가 올해부터 발달장애아동 부모들에 대한 지원 확대에 나선다.

경상북도는 우울증 등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발달장애아

동 부모들 중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대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정신적·육체적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장애아동 부모들에게 전문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이들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아동 부모 심리상담 사업은 기존 바우처 사업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 기준을 산정해 소득별로 지원액

을 차등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추가 검토 후 1회 연장 가능하다.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추가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경상북도 김동룡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아동 부모 심리상담이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 간 관계와 기능을 정상화 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수군, 화상 수화 통역 서비스 제공

집에서 민원 업무 해결 가능해져

장수군(군수 장재영)은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불편해소와 공공행정 서비스기관의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12월 20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화상 수화 통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화상 수화 통역 서비스 운영은 110수화상담사가 컴퓨터 화면을 통해 행정 기관을 방문한 청각·언어장애인과 담당 직원의 대화를 수화와 음성으로 통역해 보다 정확한 민원 업무가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기관을 방

문하지 않더라도 집 컴퓨터에 웹 카메라를 설치해 110화상수화상담페이지(www.110.go.kr)에 접속하면 집에서도 바로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청각·언어장애인들은 민원업무에 있어 불가피하게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장수군 관계자는 "110정부 민원안내콜센터와 연계한 화상 수화 통역 서비스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로 군민의 행정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강화

불법주차 차량에 과태료 10만원 부과

군산시(시장 문동신)가 1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산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

발생과 장애인들의 불편 호소가 이어져 집중단속에 나섰다.

단속지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모든 주차구역으로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이다.

단속대상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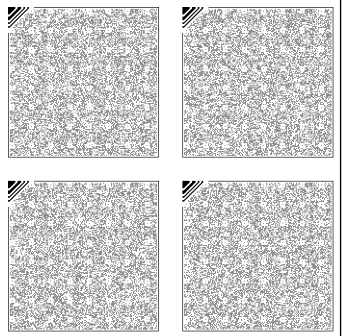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다.

군산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원래 취지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접근성표지에 대한 이해 IV

지난 호에서는 장애인접근성표지의 올바른 사용법 중 외부 및 내부형태의 변경, 양화와 음화의 변형, 그림표지의 색채 변경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장애인접근성표지의 올바른 사용법 중 표지와 문자의 병용, 방향의 변경, 내부형태의 조합사용, 공공안내 그림표지의 크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용어	금지 사례	권장 사례
노약자 Senior citizens		
장애인 이용가능 남자화장실		

〈표1〉 표지와 문자의 병용

좌우 방향 변경 가능	
	
 <p>〈사진1〉</p>	 <p>〈사진2〉</p>

〈표2〉 내부형태의 방향 변경

 	   
<p>병렬형 조합방법</p>	<p>비율형 조합방법</p>

〈표3〉 R의 조합방법

■ 표지와 문자의 병용

그림 표지와 문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식별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그림 표지 내부에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즉, 그림표지 원형 내부에 문자를 표기하거나 원형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따라서 내부에 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뿐 외부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

■ 방향의 변경

그림표지의 내부 형태 방향은 기본적으로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그 자체가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치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유도 방향을 좌우로 반전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표 2>의 <사진1>은 대만 총철사 경내에서 단차가 없는 통로가 왼쪽으로 가면 있음을 알리는 표지이고 <사진2>는 대만 태로각협곡 화장실 앞에 왼쪽으로 가면 경사도가 있음을 알리

는 표지이다.

■ 내부형태의 조합 사용

RI에서는 ISA의 조합사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 방법론 중 하나인 병렬형 조합방법은 <표 3>의 왼쪽부분처럼 각각의 그림표지 두 개를 나란히 정렬하는 방법이며, 비율형 조합방법은 오른쪽 부분과 같이 캐릭터 간 일정비율로 주 전달 내용과 2차 전달 내용을 구분하여 조합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안내 그림표」

지-KS A 0901」에서는 두 가지 방법 중 비율형 조합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공공안 내 그림표지」의 내부 형태는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장애인용 전화와 같이 두 개의 그림표지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 전달 내용은 왼쪽, 2차 전달 내용은 오른쪽 하단에 다음과 같은 비율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그 크기 비율은 2차 전달 내용이 주 전달 내용 크기의 절반정도 되도록 한다. 단, 장애인용 차량의 경우에는 예외로 장애인용 그림 표지를 오른쪽 상단에 조합한다.

참고로 <표 4> 중 기술표준원
에서 「공공안내 그림표지-KS A
0901」로 개발한 360여종 중에
포함되는 좌측의 3종류와 달리
우측의 3종류는 본 연구자가 KS
A 0901의 조합법에 따라 독자적
으로 조합한 것이다.

■ 공공안내 그림표지의 크기

「공공안내 그림표지」는 인쇄물 및 컴퓨터 환경과 옥외 시각표지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가시거리를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안내 그림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리(L)와 그 그림 표지의 최소 길이(A)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하고 있다.

$$A \geq L/100$$

여기에서 A는 「공공안내 그림표지」 한 변의 최소 길이(cm)를 나타내는 것이며, 한변의 최소 길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보다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L은 사람과 그 대상이 되는 「공공안내 그림표지」 간의 거리(cm)를 나타낸다. 즉 10m 거리일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를 최소한 10c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적정한 가시거리로서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분	장애인용 공중전화	자전거 보관소	장애인차량(예외)	장애인 이용가능 남자화장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이용가능 화장실
주 전달내용						
2차 전달내용						
조합사용						

〈표4〉 「KS A 0901」의 조합방법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의시설중앙지원센터
편의증진국장 **홍연근**

법률정보

황윤상 (변호사)



Q) 甲은 신용카드를 분실한 후 한 달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실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카드사에 전화 및 서면으로 분실신고를 하였지만 다른 사람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경우 甲은 다른 사람이 사용한 신용카드내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A)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 신용카드의 서명과 매출전표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본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여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가맹점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를 자초하거나 확대하였다면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의 책임이 감면됩니다(대법원 1991.4.23. 선고 90다15129 판결).

예를 들어 신용카드 상에 회원의 성명(남성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ex. 800101-1888888 인식번호)가 각인되어 있어 가맹점이 카드의

앞면을 살펴보기만 하면 카드상의 회원이 남자인지 알 수 있어 위 여자가 이 사건 카드의 회원이 아님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데도 가맹점들의 직원들이 상품판매에만 급급하여 이 사건 카드의 이용자가 회원 본인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경우에도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漏泄)한 경우 등 신용카드회원의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이 없는 경우에는 여전히 신용카드회사에 보상 의무가 존재합니다.

■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의 대처방법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카드사에 신고를 할 때에는 카드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카드 종류, 성명 등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이때, 신고 받은 직원의 성명, 접수번호 등을 기록해 두면 향후에 신고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신용카드가 부정 사용된 경우에는 카드사가 정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관련 소비자 상담전화 : 한국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소비자상담센터 ☎ 02-1372-0000

신용카드관련 피해구제 신청 및 분쟁조정 문의 : 한국소비자원 ☎ 1372

※ 변호사 황윤상, 장현주

전화번호 (042) 488-4141

팩 스 (042) 488-4131

민원상담

정연숙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여성정책팀장)



Q) 장애는 하나의 장애만 등록할 수 있나요?

A) 여러 가지의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2가지의 장애를 유효하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2011-91호의 중복장애 합산 편을 보면,

가.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나.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하며, 서로 등급이 다른 때에는 <표2>중복장애 합산 시 장애

등급 상향 조정표에 따릅니다.

(1) 중복 장애의 합산은 주된 장애의 소관 전문의가 하되, 합산이 명확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2) 중복장애의 합산에 따른 주된 장애등급의 상향조정은 두 가지 장애를 합한 장애율이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의 장애율과 비교하여 반드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장애율은 아래 <표1>과 같으므로 <표2>의 기준을 참고하여 장애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는 합산할 수 없다.

※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다만, 지체장애가 상위등급이고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3) 지적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4) 자폐성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5) 정신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6)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판정을 할 수 없다.

<표1> 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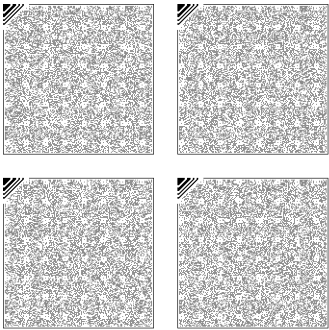
	1급 (85~)	2급 (75~84)	3급 (60~74)	4급 (45~59)	5급 (35~44)	6급 (25~34)
1급 (85~)	97.75	96.25	94.0	91.75	90.25	88.75
2급 (75~84)	96.25	93.75	90.0	86.25	83.75	81.25
3급 (60~74)	94.0	90.0	84.0	78.0	74.0	70.0
4급 (45~59)	91.75	86.25	78.0	69.75	64.25	58.75
5급 (35~44)	90.25	83.75	74.0	64.25	57.75	51.25
6급 (25~34)	88.75	81.25	70.0	58.75	51.25	43.75

<표2>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급	1급	1급	1급	1급	1급	1급
2급	1급	1급	1급	1급	2급	2급
3급	1급	1급	2급	2급	3급	3급
4급	1급	1급	2급	3급	3급	4급
5급	1급	2급	3급	3급	4급	4급
6급	1급	2급	3급	4급	4급	5급

Voiceye Saeboram News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인도 바리스타의 꿈 이룰 수 있어요”

용산구,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과정 운영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커피 전문점 엔제리너스와 함께 장애인 바리스타 육성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용산구는 주변과 단절되기 쉽고 취업이 여의치 않은 장애인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 용산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총 10명의 지적장애인을 선발한 용산구는 9월부터 엔제리너스에서 파견된 전문 강사를 통해 바리스타 실무교육과 직업

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교육, 체력강화훈련 등을 실시했다.

12월에는 교육생 중 4명을 대상으로 엔제리너스 매장에서 2주간의 인턴실습을 진행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교육생이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는 성과를 거두

기도 했다.

한편 용산구는 올해도 바리스타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2기(3월~6월), 3기(9월~12월) 교육과정을 추가 운영한다.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사회복지과(☎2199-7124)로 문의하면 된다.

청각장애 스포츠댄서, 네일아티스트로 변신

직업개발사업 통해 대기업 취업 성공

청각장애를 가진 스포츠댄서 김보람(청각장애 2급) 씨가 네일아티스트로 변신, 취업에 성공해 화제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중증장애를 가졌지만 비장애인 못지않은 댄스 실력으로 주목받았던 김 씨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남다른 노력으로 장애인 전국체전 1위, 비장애인들과 경쟁한 전국 대회에서도 두 번이나 우승을 차지했다.

그리고 지난 7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이하 공단)에서 실시한 ‘청각 여성장애인 서비스분야 직업영역개발사업’에 참여해 네일아트 자격증을 취득하고 바로 신한생명 네일아트 직무 채용 시험에 합격했다.

김 씨는 “스포츠 댄서로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회에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 네일아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단 이성규 이사장은 “청각 중증장애인이 서비스 분야에서도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여 이번 고용사례가 향후 서비스 분야의 타 기업으로도 확산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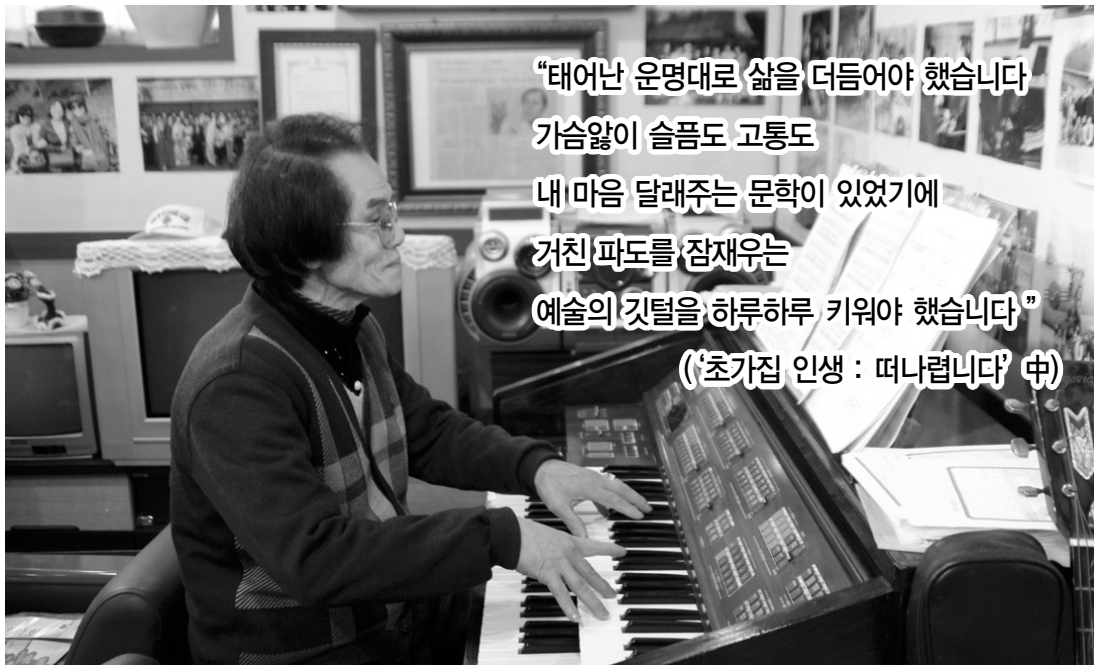


네일아트에 열중하고 있는 김보람 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취업정보

	업종	업 체 명	근무지	연령	성별	근무내용	급여	보험	연락처
1	미화직	(주)한얼관리	서울시 전역	65세 이하	무관	미화직	월 10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2	생산직	모던조이	서울시 중랑구	40세 이하	무관	미싱보조	월 11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3	생산직	유니프라임	경기도 부천시	45세이하	여	조립업무	월 11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4	생산직	(주)정립전자	서울시 광진구	35세 이하	남	SMT업무/2교대	월 14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5	생산직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정보화인쇄사업단	서울시 영등포구	45세 이하	남	인쇄관련 단순직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6	생산직	(주)성원공조	서울시 성동구	40세 이하	남	닥트제작 및 조립	월 13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7	생산직	미주산업	서울시송파구	45세 이하	무관	엑세서리 조립 및 포장	월 13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8	서비스직	(주)선정인터내셔널	서울시 종로구	40세 이하	여	아웃바운드	월 11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9	서비스직	(주)나라개발시스템	서울시 전역	65세 이하	남	소독원	월 14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0	서비스직	(주)코스트코	경기도 고양시	-	무관	대형마트 (진열, 캐시, 안내 등)	시급 8,200원	4대보험	02-2289-4322
11	서비스직	(주)신양이엔지	서울시 노원구	50세 이하	남	건물 주차경비원	월 13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2	전문직	한솔기획	서울시 구로구	35세 이하	무관	편집디자이너	면접 후 결정	4대보험	02-2289-4321
13	전문직	디자인여백	서울시 영등포구	35세 이하	무관	편집디자이너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4	사무직	(주)TLS정고려인삼	서울시 서대문구	50세 이하	무관	자료 엑셀입력작업	월 13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5	사무보조직	금융감독원	서울시 영등포구	50세 이하	무관	사무보조 및 행사지원	107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6	운전직	(주)나라개발시스템	서울 전역	60세 이하	남	아파트 수목 소독	월 15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7	운전직	(주)지피솔루션	서울시 구로구	35세 이하	남	거래처납품 및 배송	월 16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8	경비직	(주)인덕종합관리	서울 전역	60세 이하	남	건물 경비직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9	경비직	(주)오투기토탈시스템	서울시 중구	62세 이하	남	건물 경비직	월 15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예술인 박경훈, 장애를 뛰어넘은 아름다운 도전



“태어난 운명대로 삶을 더듬어야 했습니다
가슴앓이 슬픔도 고통도
내 마음 달래주는 문학이 있었기에
거친 파도를 잠재우는
예술의 깃털을 하루하루 키워야 했습니다”
(‘초가집 인생 : 떠나드립니다’ 中)

음악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박경훈 씨.

긴 세월동안 내달려온 삶의 여정을 시집 한 권에 담아냈다는 시인 박경훈 씨(66세).

시 구절구절마다 고단했던 삶의 무게와 함께 그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피어나는 그의 창작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 어둠 속 한 줄기 빛을 찾아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음악과 문학을 좋아했다는 제주 소년.

그는 장애인인 아버지와 항상 바쁜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가난은 항상 그를 따라다녔고 세월이 흘러도 나아지지 않는 생활 속에서 그는 보물찾기 하듯 희망을 찾아 헤맸다.

어린 나이에 전국을 누비며 구두도 닦아보고 삼복더위에 아이스케키, 눈 내리는 밤에 찹쌀떡을 외쳐보기도 했다. 고달픈 하루의 연속이었지만 일기장에 한 자 한자 시를 적으며 괴로움을 털어내고 앞만 보고 달렸다.

숨 가쁘게 달려오다 보니 희망을 쫓던 소년은 청년이 되어 결혼도 하고 중년이 되어 4남매도 얻게 됐다.

길고도 질긴 가난과 힘든 삶에 불평을 할만도 하지만 오히려 그는 그의 옛 시절이 비참하기 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한다.

그렇게 그는 주어진 삶에 순응하며 어둠 속 한 줄기 빛을 찾아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인 차별을 몸소 겪으며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다. 장애인에게 보내는 매섭고 싸늘한 주위의 시선이 그를 더욱 힘들게 했다.

■ 순간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남겨진 숙제

그러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던 그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은 IMF 경제위기가 불러들인 1997. 경기침체의 여파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는 사업에 실패했고 하지 말아야 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됐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것이다.

눈을 떠보니 병원에 누워있었고 허리와 다리를 크게 다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정상적으로 걷을 수 없게 됐다. 운명의 장난인지 기차에 치이는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된 그의 아버지처럼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여러 번의 고비를 넘기며 삶을 되찾았지만 장애를 인정하고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 장애인이 되기 전에는 몰랐던 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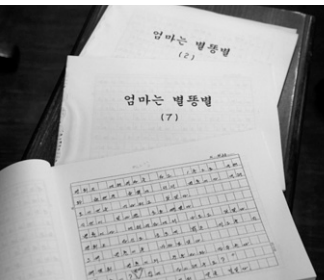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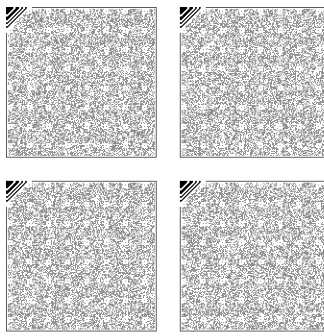
그는 장애를 얻기 전 보다 더 시 쓰기에 열중했고 음악과 사진 등 다방면에서 타고난 예술가적 기질을 발산하며 다시 희망을 뜨게 질해나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2년 월간 문학세계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늦깎이 시인으로 등단해 시집 ‘초가집인생’을 비롯한 소설 ‘엄마는 별똥별’까지 발간했다. 시인에서 소설가로 자신의 문학영역을 넓혀나간 것이다.

또한 그는 작곡가였던 그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음악에도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2004년에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로 첫 번째 음반 ‘초가집인생’을 발매한데 이어 2006년에는 ‘마라도사랑’ 등을 발표하고 가수로도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그는 사진 촬영에도 뛰어난 감각을 발휘해

소리로 읽는 새보람



박경훈 씨가 손수 써내려간 소설 ‘엄마는 별똥별’ 자필 원고.

■ 장애인들, 연꽃처럼 살아가길

장애인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는 그는 장애인이 되고 나서 장애인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한다.

다재다능한 예술인으로 인정받으며 바쁜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자신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싶어 자신의 재능을 살려 틈틈이 장애인들을 위한 공연을 펼쳐온 것이다.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것이 예술이지만 그는 앞으로로도 문학, 사진, 음악에서 창작 열정을 꽃피우며 여생을 보낼 거라며 예술 활동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공연도 많이 하고 싶다고 주위를 챙기는 따뜻한 마음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진흙 속에서도 아름다운 연꽃이 피듯이 힘든 삶에도 행복은 반드시 찾아온다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연꽃처럼 살아가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다섯 개 예술영역 넘나들며 창작 열정 꽃피워

“진흙에서도 연꽃이 피듯 희망 갖고 살아요”

하지만 그는 항상 자신을 믿고 사랑으로 지켜준 아내와 4남매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힘을 내기로 했다.

■ 장애 극복하고 팔방미인으로 거듭나

어릴 적부터 시인이 꿈이었던



위문공연을 펼치고 있는 박경훈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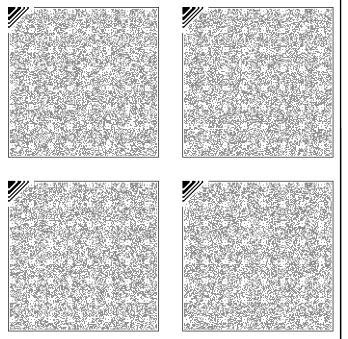
사진대회에서 입상하는 성과도 올렸다. 무려 지금은 신인가수를 양성하며 음반제작자로도 활약하고 있다.

장애를 극복하고 이렇게 시, 소설, 작사·작곡, 노래, 사진촬영 등 다섯 개의 영역을 넘나들며 창작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그야말로 팔방미인이 아닐 수 없다.



공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장애인시설 원생들과 박경훈 씨.

소리로 읽는 새보람



‘기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

시각장애인에게 세상을 들려주세요!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 진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일반인들의 목소리 기부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화면해설 영화와 오디오북을 제작하는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 캠페인을 시작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로 실시되는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는 예방 가능한 실명 퇴치를 위한 ‘Seeing is Believing’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8월 부산국제광고제 Effectiveness 부문에서 그랑프리 수상한바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1월 13일 까지 목소리 재능기부 참가 신청을

받아 1월 19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착한 목소리 페스티벌’에서 전문 성우들의 현장 심사를 통해 최종 참가자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자들은 1개월 이상 특별 트레이닝을 받은 후 화면해설 영화와 오디오북 제작에 참여하게 되며 제작된 영화와 책은 4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기부된다.

한편 스탠다드차타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브리즈(Breeze)’를 다운받거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페이스북의 친구가 되어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를 응원하는 ‘좋아요’를 누르면 ‘Seeing is Believing’ 기금 모금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이스트소프트, 재능나눔 프로젝트 실시 비영리기관에 알약·알집 등 SW 기증

이스트소프트가 사회복지단체에서 운영하는 컴퓨터교실에 알약, 알집 등 소프트웨어 제품을 기증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정품 SW를 구매하기 어려운 비영리기관인 사회복지단체, NGO 단체뿐만 아니라 재활용 PC를 해외 저개발국가에 기증하는 사회적 기업에도 SW 제품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이스트소프트 재능나눔 프로젝트 페이지 (www.esoft.co.kr/project/nanum.aspx)에 접속해 필요한 제품과 수량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이스트소프트는 2012년 3억 7천 만원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24개 기관에 기증했으며 지난 12월 알마인드 Pro 프로그램의 판매 수익금 전액을 저소득층 아동들의 꿈을 위한 기업 사회공헌 네트워크 드림투게더에 기부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바 있다.

이스트소프트 김장중 대표는 “우리의 작은 나눔으로 사회공헌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6개 시·도 협회와 232개 시·군·구 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또한 이 나라 480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제 및 중증장애인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 선도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사랑 나눔 운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 회원구분

일반회원 (2천원/월)	일반회원2 (5천원/월)	일반회원3 (1만원/월)
특별회원1 (3만원/월)	특별회원2 (5만원/월)	특별회원3 (10만원/월)
단체회원 (연 20만원이상)	기금회원	물품회원

■ 후원금 납부방법

-지로, 자동이체 CMS
-후원계좌 : 국민 822-01-0136-451
농협 033-01-174991

※ 후원금은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신청

- 전화신청 : ☎02)796-4280
- 홈페이지 신청
협회 홈페이지(<http://www.kappd.or.kr>) 접속 - 나눔마당 - 후원신청

■ 2012년 12월 후원자 명단(가나다 순)

강병석, 김구환, 김진호, 김환경, 남용원, 노순화, 박소연, 박종형, 반형만, 서석범, 서재훈, 신병욱, 우병훈, 원종빈, 유재복, 윤채환, 이승복, 이은정, 이효지, 임채중, 장은정, 전소현, 정다운, 주명희, 주영래, 최영민, 하정미

(후원자님이 후원해 주신 후원금은 480만 장애인들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응모
요령

'★'에 있는 말로 단어를 조합해 우편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
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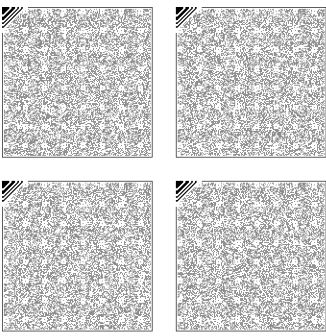
정답
힌트

육십간지의 30 번째 해로 2013년을 이르는 말.

1★		2		3		4
	5			6	7	
8						
★			9		★	
10						



소리로 읽는 새보람



지난호 정답

1 ^대	장	2 ^간		3 ^통	계	4 ^청
		자		신		자
	5 ^시	미		6 ^사	7 ^자	
	행				린	
8 ^대	★ ^령				고	
내			9 ^가	랑	비	
10 ^적	재	적	소			

| 가로열쇠 |

1. 군대 따위의 조직에서 서열이나 직급을 나타내기
위하여 옷이나 모자에 다는 표장(標章).
3. 새로운 지식.
5. 전기 철도 위를 달리는 전동차.
6. 흥년으로 먹을 양식이 모자라 굶주림.
8. 큰 모임이나 회의.
9. 지난해의 바로 전 해.
10. 잎사귀의 모양이나 빛깔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기
기 위하여 재배하는 식물. 단풍나무, 고무나무, 색
비름, 만년청 따위이다.

| 세로열쇠 |

2. 장마가 지는 철.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6월 말부
터 8월 초이다.
3. 새로 맞이하는 학기.
4. 분별하여 알아봄.
5. 특정한 물건을 벌여 차려 놓고 일반에게 참고가 되
게 하는 모임.
7. 삼가 새해를 축하한다는 뜻으로, 새해의 복을 비는
인사말.
8. 대사가 주재국에서 공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그
런 청사(廳舍).
9. 돈이나 그 밖의 값나가는 모든 물건.

당첨자

12월호 정답

대통령

이순기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조속희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이한복 전남 목포시 산정로

다른 그림 찾기 DIFFERENT SEARCH



두 사진에는 3곳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 설명

1월 2일 여의도 이룸센터 다목적실에서
열린 지장협 중앙회 '2013년 시무식'에
서 임직원들이 계사년 새해 장애인들을
위해 열심히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매달 정답자 세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
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가브리엘 천연공방의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인미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색소와 화장품 원료 기준에 적합하고
검증된 원료들로부터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의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들로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인미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기념품, 답례품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천연폼클렌징



천연바디워시

천연주방세제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www.gabrielcenter.or.kr

응모요령 : 2장의 사진 중 아래의 사진에 서로다른 부분을 표시하고(2개 이상) 절취한 후, 우편엽서 뒷면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